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김 학 업
환경보전협회 사무총장

환경교육의 핵심은 환경에 대한 바른지식과 행동을 배워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의 목적은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태도의 함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방법의 지속적인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아 인간의 가치와 행동의 본질이 점점 변화되어가는 지금, 환경교육방법에 있어서의 새로운 모색과 전환이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까지 환경교육은 이론을 중시한 주입식 교육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90년대말에 들어서 체험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민간단체 및 정부를 중심으로 현장체험 환경학습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연구개발이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시작이 중요한 환경교육...

어느 한 단체가 서울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교육을 받은후 그 실천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62%가 "대부분 실천한다"라고 답했고, 38%는 "실천하지 못한다" 또는 "관심없다" 등의 답변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 정도가 아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환경교육이 대부분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에 치우쳐 정작 실천단계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비단, 학생 환경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 환경교육에 있어서 지금까지 문제로 제기되어온 우리 환경교육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위주의 강의중심적 교육을 통해서서는 그 실효성이 매우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환경교육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교육대상자의 흥미와 재미(어린이 및 학생 환경교육인 경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교육에 있어서 흥미와 재미가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으나 교육효과의 증대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환경교육을 보면, 흥미는 어느정도 고려하고는 있으나 오히려 환경보전을 실천했을때 경제적으로 얻어지는 예상이익들을 우선시 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교육방법에 있어서 접근방식이 연령층에 따라 맞춤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환경교육은 다양화 및 체계화가 점점 요구됨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처럼 다양성과 체계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를 어떻게 충족시키나 하는 문제는 환경교육에 있어 풀어야할 또 하나의 숙제로 등장한다.

환경교육의 기본틀 마련...

환경교육에 있어 또 다른 어려운점은 여타 교육과는 달리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교육의 효과가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그 정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을 위해 준비된 갖가지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평가와 객관적인 검증의 절차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일반 환경교육)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및 단체 또한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민간단체들이 주축을 이루어 각 단체의 성격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들 단체들도 교육만을 목적으로하고 있지않아 실제 환경교육만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는 전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환경교육은 준비의 단계, 진행의 단계, 결과의 단계 등 일련의 교육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미비사항을 점차 보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체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종합환경교육프로그램은행'이라든가 '종합환경교육네트워크망' 구축등이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사업들을 수립·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적 준비와 충분한 예산의 투자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밑바탕이 되어야하고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교육기관, 전문연구기관등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어느 한 환경운동가의 말에 의하면,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강사섭외이며, 그것 또한 제한이 되어 있어 강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한다. 그리고 강사가 섭외된다 해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유익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느냐는 그 다음과제로 남게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2000년도부터 환경부에서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연간 약 8억원을 일선학교 및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체험환경학습을 통한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과의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개발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

환경교육의 전문성 확보...

환경교육은 현재, 일선학교와 민간단체들이 주축을 이루어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는 이들 교육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주요 예산지원처를 보면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 환경부(매년 2월)", "환경보전사업등 NGOs 활동지원 - 행정자치부(매년3월)", "서울시정 환경보전사업 - 녹색서울시민위원회(매년2월)", "환경교육연구 및 사업지원 -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매년 3월)", "각종 환경보전사업 -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매년 1월)"등 여러곳에서 환경교육을 비롯한 관련 사업에 다양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여러곳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보다, 예산을 받은 단체들이 일회성 행사를 위한 사업신청이 아니라 해당 단체들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적절한 사업선택과 내실있는 행사추진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올해 2월에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보전과 관련된 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수가 약 800여개로 집계되었다. 물론 NGO의 수가 점점증가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환경에 대한 순수한 목적과 전문성이 대부분 부족하다는 점은 깊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맺으면서 ...

환경교육의 기본목적은 사회와 경제, 문화등 여러측면이 서로 영향을 끼쳐 인간과 자연의 복잡한 특성을 이해시키며, 아울러 책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경문제를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환경보전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지식, 가치관 및 실천습관을 배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시말해 환경교육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유지하여 상호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비록 시작은 힘들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상황들을 주시해 본다면, 환경교육은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예상되며, 또한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환경교육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된다.